



● Anomalie

캐나다 출신의 아티스트로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진 않지만 이미 Charlie Puth, FKJ, Thunder Cat 등 엄청난 아티스트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프로듀서 겸 연주자이다. Jazz, Funk, Soul ,Electronic 등을 자유자재로 본인만의 스타일로 표현하고 있고 트렌디한 사운드와 연주력을 들려주며 젊은 아티스트들 사이에서는 이미 엄청난 인기를 보여주고 있다.

싱글앨범 “Odyssee” 를 시작으로 첫 정규앨범 “Metropole” 을 발매하며 앨범마다 청중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19년 3월에 첫 내한공연을 가지며 국내 팬들과의 만남을 가진 아노말리의 음악의 매력이라고 하면 다양한 신스 사운드의 절묘한 조합과 화려한 연주의 결합으로 듣는 이로 하여금 아주 짜릿한 느낌을 준다고 할 수 있겠다.



● Tank and the bangas

2011년 이들은 리더 Tank를 중심으로 미국 뉴올리언즈에서 만나게 된다. 여러 클럽의 오픈 마이크를 시작으로 엄청난 신예들을 발굴하기로 유명한 프로그램 “NPR Tiny Desk Concert”의 오디션을 통과하고 출연하게 되며 주목을 받게 된다. 리더인 Tank는 원래 음악가는 아니었다. 특이하게도 시인으로 활동하던 그녀는 밴드 멤버 조슈아 존슨(드럼), 조나단 존슨(베이스와 키보드), 머렐 버케트(키보드), 안젤리카(백그라운드보컬) 앨버트앨런(관악기) 과 함께 하게 된다. 평론가 들은 그들의 음악을 펑크, 힙합, 락 ,일렉트로닉 의 절묘한 조화라고 이야기한다. 2013년 데뷔앨범 “Think Tank” 부터 2019년 앨범 “Green Balloon” 까지 내는 앨범마다 대중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이들은 또한 2019년 그래미 어워즈 “최우수 신인상” 후보에 노미네이트 되기도 했다. 리더인 Tank의 노래할 때의 표현력 소울과 힙합을 오가는 멜로디 그리고 멤버들의 다양한 사운드 표현이 이 밴드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으며 앞으로도 이 밴드의 앨범이 기대된다.



● Justin Timberlake

1981년 1월 31일 미국 테네시 주 멤피스의 한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스틴 팀버레이크는 Star Search라는 프로그램에 나가 11살 처음 그의 재능을 뽐낼 기회를 가진다. 그 후 저스틴 팀버레이크는 유명 보이밴드인 “N.Sync”의 멤버가 되고 1995년 멤버들과 처음 함께한 저스틴은 1998년 데뷔앨범을 내놓으면서 스타덤에 오르게 되며 미국에서만 1100만장이라는 앨범 판매량을 기록하게 됩니다.

엔싱크 활동 당시 저스틴 팀버레이크는 연기 활동을 병행했다. 이 과정 속에서 저스틴은 다른 멤버들보다 훨씬 유명해지고 그룹의 인기는 하향으로 가면서 그룹의 해체 수순을 밟았다고 한다. 이렇게 갈라진 이후 솔로로 나온 저스틴은 첫 싱글 “Like I Love You”로 빌보드 11위를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데뷔하고 첫 앨범 “Justified” 또한 높은 판매고를 기록하며 성공적인 솔로 데뷔를 알린다.

그리고 나온 2집 앨범의 싱글 “SexyBack”이 빌보드 차트 7주 연속 1위, 두 번째, 세 번째 싱글인 My Love, What Goes Around 등 모두 빌보드 1위를 기록했고 앨범 자체도 빌보드 앨범차트 1위를 찍는 등 엄청난 히트를 기록합니다. 2집의 대성공 이후에는 본인의 곡보다는 피쳐링과 영화 작업에 조금 더 몰두하는 보이며 2006년 이후에만 14개의 영화를 촬영 하였다. 7년 만에 솔로로 컴백한 저스틴은 지난 두 앨범이 인기가 엄청났기 때문에 자연스레 기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싱글 “Suit & Tie”가 빌보드 3위, 두 번째 싱글 “Mirrors”가 2위를 기록했었다. 아이돌 성향의 엔싱크라는 보이그룹으로 데뷔해 지금은 연기를 포함해 노래,연주,연주,춤실력 까지 갖춘 그의 노력과 재능은 팬들에게 사랑받기 충분하다.



● Black Pink

블랙핑크는 YG 소속의 걸그룹으로 2NE1 이후로 나온 YG의 두 번째 걸그룹이다. 2016년 8월 8일 “휘파람”과 “붐바야” 더블 타이틀로 데뷔. 멤버로는 지수, 제니, 로제, 리사가 있다. 블랙핑크는 데뷔와 동시에 음원 차트 1위를 싹쓸이하고 음방 1위를 하는 등 괴물 신인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또한 2016년 각종 시상식에서 신인상을 휩쓸기도 하였다. 테디가 프로듀싱을 맡은 블랙핑크는 데뷔 3개월 만에 또 한 번의 컴백을 보여주며 빠르게 성장해나갔다. 그러나 팬들의 빠른 컴백에 대한 기대감과 다르게 2017년 6월 마지막처럼 이후 1년이란 공백기를 맞게 되었다. 긴 기다림 끝에 2018년 6월 15일 첫 미니앨범인 “SQUARE UP”을 발매하여 연간 6위에 안착하는 등 식지 않는 인기를 보여줬다. 또한 그해 11월에는 제니의 솔로 앨범이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2019년 4월 5일 YG의 여러 악재 속에서도 킬디스립을 통해 음원차트 상위권에 안착하며 저력을 보여주었다. 2018년 11월 10일 첫 번째 단독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쳤으며 미주 투어 및 유럽투어를 매진시키며 세계적인 걸그룹을 위한 발판을 만들게 되었다.